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9년 1월 6일 (제984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컬럼

예수님이라면?

교회를 떠났던 주의 종들이 돌아와 다시 받아달라고 할 때 나는 생각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바로 답이 나온다. 그들을 용서함은 물론이고 다시 기회를 주게 된다. 계속 속을 썩이는 성도들이 있다. 씻겨놓으면 다시 토한 자리에 눕는 돼지처럼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자들이 내게 와서 다시 용서를 구할 때도 나는 생각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사람의 생각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생각이 되어 일흔 번에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고 보듬게 된다. 예배가 끝나고 온 몸이 파김치가 되었는데도 안수를 받으러 오는 성도들을 보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한다. 그러면 ‘내 팔이 당신 팔이 되게 하소서.’ 하며 일어나 모든 자들을 안수하게 된다. 내 사무실에 들어가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액자가 있다. 30년째 가지고 있는 글귀다. 이 말씀은 나의 묵회와 신앙의 기준이 된다.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그러면 길이 보이고 답이 보이기 때문이다.

2019년, 나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살자!” 라는 표어를 여러분에게 제시한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다. 예수님의 심정이 되면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섬기게 된다.

로마서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 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롬8:29)라는 말씀이 있다. 하나님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니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과 성품을 닮고 본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힘이나 의지로 되지 않는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가능하다. 성령의 충만을 입을 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2019년, 매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살자.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을 닮게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숨 가쁘게 달려온 2018년을 보내고 2019년 새해를 맞았다. 세상은 해돋이를 보며 한 해의 소원을 빌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해를 만드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낮을 밟는 것으로 한 해를 시작한다.

2018년 12월 31일 저녁 10시,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송구영신예배가 KBS88체육관에서 진행되었다. 이 예배는 위성 및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 전국과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고, 성전은 신년의 축복을 갈망하는 성도들로 가득했다. 단애 오르신 목사님은 ‘하나님이 쓴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주제로 신년 첫 메시지를 선포하셨다.

“오늘 나는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지나온 묵회 34년을 회상했습니다. 뒤돌아

그것들이 경험이 되어 난관에 부딪칠 때면 뒤로 물러가 침묵에 빠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문제와 맞섰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수1:5~6). 이는 모세가 죽은 후에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

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위험 앞에서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며,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도 풀무불에 들어가는 지경에 처하고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도 그런 믿음이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어린 다윗이 담대하게 구척장신의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두려움에 떨니까? 조그마한 문제만 생겨도, 권력자 앞에서, 돈 좀 있는 자 앞에서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람이 우리를 어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

2019 송구영신예배

보니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길은 정말이지 눈 덮인 산야요, 물 없는 사막이었습니다. 교단으로부터의 제명, 매스컴의 매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분리, 친구들과의 단절, 술한 모함과 위협,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나간 해외선교 중에는 KGB에 끌려가고, 재판관을 받아 추방을 당하며, 자동차가 없어지고, 비행기가 추락할지 모를 위험도 넘어야 했습니다. 예배드릴 처소가 없었던 때도 있었고, 야외집회 당일 비가 쏟아지고 태풍이 불어왔고…, 열거하자면 한도 없고 끝도 없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떠오른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담대함’이었습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왜 난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물리치고 오직 담대함으로 나갈 때 이 모든 일들이 풀리고, 길이 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28:19~20). 이것은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여호수아에게,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에게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고 독려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도 예수님도 담대한 자를 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사람의 공통점은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짱이 두둑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41:10).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산천을 떠났지만 그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았던 것이고, 다니

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히13:6).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인들 어찌겠습니까(롬8:35)?

여러분, 에베에셀의 하나님이 2019년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십시오. 풍랑이 일어도, 위험 앞에서도, 세간의 시선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366번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2019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자. 그러면 2019년에 우리 앞에 무릎을 꿇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분명히 알자. 하나님은 담대한 자를 쓰시고, 담대한 자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자 신묘수

jesus7857@gmail.com

구독신청 02) 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잠4:23)

성인군자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다

2018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화두(話頭)는 ‘혈기 내면 개망신당하고 망한다.’입니다.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2018년, 유독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수치를 당하고 패가망신(敗家亡身)은 물론, 선대가 애써서 일궈놓은 기업이 존폐의 위기까지 갔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모두가 순간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잠25:28)는 성경 말씀이 그들에게 응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도 지켜주는 자가 있고, 집도 지켜주는 자가 있고, 가족도 지켜주는 자가 있습니다. 기업도, 생업 터도 지켜주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잠4:23)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망의 근원 역시 마음에서 비롯됨을 알아야 합니다.

온 천하를 다스리는 자보다 나를 다스리는 자가 더 위대하다

가장 이기기 힘든 순간적인 감정은 ‘분노’입니다.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성경은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는 누가 서리요”(잠27:4)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수(漲水)란 강물이 불어서 넘쳐나는 물을 말합니다. 홍수가 났을 때 급류 보셨지요? 그것들은 인정사정 안 봐줍니다. 집이며, 자동차며,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다 쓸어가 버립니다.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순간의 분노가 그동안 가꿔놓은 것들, 애쓰고 힘써 일궈놓은 것들, 공들여놓은 것들을 일순간 앗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입니다. 살인하게 된 원인은 바로 순간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입니다(창4:5~8).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열납하지 않자 화가 나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동생 아벨은 일찍 세상을 떠난 억울함은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분노하여 살인한 가인은 어찌 되었습니까? 간신히 생명표를 얻어 목숨은 건졌으나 평생 되는 꼴이 없이 유리방황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창4:11~12).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칭송하며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잃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다윗을 쫓다 결국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비명횡사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는 자들에게 일찍

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터이므로 내 칼을 집에서 빼어 무릇 혈기 있는 자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와 내 칼을 집에서 빼어낸 줄을 알찌라 칼이 다시 꽃혀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렘21:4~5). 그리고 아울러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잠16:32),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잠19:11)고 말씀하심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위대한 자임을 말씀하고



총회장 이초석 목사

어떤 사람
을 두고
‘저
사
람
은
성인군
자야.’라고
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기 마음
을 제어할 줄 알고 다스릴 줄
아는 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성인(聖人)의 성(聖)은 성스러운 성, 존경받을 성입니다. 이 글자의 모양새를 보면 귀(耳)에 입(口)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귀로 듣고 나중에 말한다는 뜻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버럭 화를 내지 않고 충분히 듣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듣는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요, 이는 인내를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의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조차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이 계셨고, 하나님의 아들인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들 앞에서조차 맞받아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셨음을 배워야 합니다. 큰 인물이 되려면, 지도자라면 이렇듯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사도인 바울도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어려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롬7:24)고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죽겠다.’ 이런 겁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혈기왕성한 자였습니다. 그 혈기를 빼기까지 40년이나 광야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천하에 온유한 자라는 칭함을 받았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을 가던 중, 순간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평생의 소원을 이루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민

수기 20장을 보면 광야에서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 이르

러 물이 없다고 불평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지팡이를 손에 쥔 모세는 늘 불평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여 그만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내리치고 맙니다. 그 결과로 모세는 그렇게도 그리고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맙니다(신34:1~5).

모세도 온전히 이루지 못한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왜 어려운가 하면, 내 안에 나 아닌 다른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롬7:20~21). 나 아닌 내가 내 안에 있어 마음의 풍랑을 일게 하는 것입니다. 그 놈이 바로 더러운 귀신입니다. 가인의 분노를 주장한 영물(靈物)이 있었고, 화를 내는 배후에 악한 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분노를 삭이는 방법은 다른 아닌 오직 성령 충만

밖에는 없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온유’요, ‘오래 참음’이기 때문입니다(갈5:22~23).

쉬이분을 내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뵈기 전에는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으나(행9:1) 성령이 임하자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옛 사람이 벗어지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매한 꾀박과 환난과 모함에도 참고 이겨냈고,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옥중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항상 기뻐하라’ 한 그의 편지가 그의 변화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니 혈기가 사라지고 온유한 자가 됩니다. 제 얼굴에서 사나움이 없어지고, 제 마음에 노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스림은 오래 참음을 뜻하는 것이고, 이는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내(忍耐)는 참을 인(忍)과 견딜 내(耐)로 이뤄졌는데, 참을 인(忍)자는 칼(刀)과 마음 심(心)으로, 입에 칼을 무는 심정으로 마음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을 인(忍)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났을 때 입에 칼을 무는 각오로 참아내는 것입니다. 상사가 뭐라 한다고 버럭해서 사표 던지고 나오지 말고 인내해보세요. 사표 던져봐야 나만 손해입니다. 아내와 싸웠다고 ‘이혼하자’ 그러지 말고 인내해보세요. 나중 ‘잘 참았다’ 할 것입니다. 아랫사람이 말 안 듣는다고 화내고 때리지 마세요. 바로 구속됩니다.

자동차에 액셀러레이터가 있는가 하면 브레이크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길에는 반드시 마음을 제어하는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고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2019년에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봅시다. 그러면 참게 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을 입어 대해(大海) 같이 큰마음으로 살아봅시다. 찢려도 표 내지 않는 솜 같은 마음으로 살아봅시다. 그래서 범이 날개를 다는 복을 받읍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마5:5). 할렐루야!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목사님께서 이 글을 액자에 써서 사무실에 걸어놓고 일하십니다. 혹시 한 시라도 잊을까봐 자주 보이는 곳에 걸어놓으신 듯하다. 여러 차례 설교를 통해 듣고 나도 그렇게 살아보리라 하여 수첩 맨 앞장에 적어놓고 늘 생각하며 살아보려 애썼다. 순간순간 내게 어렵거나 혼란한 일이 닥칠 때마다 ‘예수님이시라면 이럴 때 어떻게 결정하셨을까?’를 생각하고는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수없이 느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결단하여 자신이 대견스럽기도 했다.

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개, 돼지처럼 토한 것 다시 먹고 더러운 자리에 찢고 눕고, 찢고 눕고 하는 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가난하여 평생을 남의 도움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가며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모두 끌어안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가지지만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는 것은 따로 있다. 바로 예수 닳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 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셨다. 에베소서 4장 13~15절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찌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하셨고, 베드로후서 1장 4~7절에도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으니 이러므로 너희

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고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이르기를 원하셨다. 히브리서 5장 12~14절에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까 자라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시며 우리가 어린 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도 사도 바울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고 말씀하셨다. 또 이사야서 5장 1~3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들포도가 아니고 극상품 포도임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점 없고 흠 없고 주름 잡힌 것 없는 순결한 주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벧후3:14, 엡5:27). 그러므로 죄와 목숨 걸고 싸워야 하고 자신의 생각과 싸워야 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바이다.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박보검 형제가 우리 목사님의 기쁨과 자랑거리라고 말씀하신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라 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즐거워하신다고 하셨다(슥3:17).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렇게 해야 한다.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다. ‘이 정도면 됐지, 남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데 나는 예수님 믿지, 주일 꼬박꼬박 지키지, 십일조 잘 드리지...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자. 신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점 없고 흠 없고 주름 잡힌 것 없는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의 자리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른다. 주님 만나는 날까지 꾸준히 성장해가야 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정신이 마음깊이 뿌리 내려지기를 바라며! 할렐루야!

서울예수중심교회 이시대 목사

우리는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은가!



어느 큰 교회의 사모가 간증집을 냈는데 그 교회 집사가 간증문을 읽고 비판의 글을 써서 사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사모는 집사에게 받은 비판의 메시지를 읽고 화가 나서 분을 참지 못하고 그 집사에게 즉시 편지 10장의 분량

으로 반박 글을 써가지고 우체국으로 가서 편지를 등기로 부치려할 때 갑자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 왔다. “너는 왜 할 말이 그렇게 많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모는 편지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음성을 되새겨봤다. ‘왜 나는 조그만 일에도 화를 내고 참지 못하며 변명을 하려하는가?’ 사모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회개하였다. 며칠이 지난 후 그 집사는 사모에게 찾아와 잘못을 빌었다. 그리고 집사는 사

모를 돕는 자가 되어 교회에 큰 일꾼이 되었다고 한다. 나도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과 아주 사소한 일을 가지고 서로 자기주장을 한 적이 있다. 즉시 회개를 했지만 우리는 오해가 생겼을 때 자기변명과 해명을 하고 자기를 지키려고,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가! 총회장 목사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해라’는 누가복음 21장 14절 말씀을 근거로 절대 변명할 생각을 하지 말

라고 강조하셨던 생각이 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때 주님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사53:7). ‘매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살자!

양주예수중심교회 강반석 목사

최선을 다하자!



2019년 기해년의 새해가 밝았다.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찬 한해가 되기를 바라며 나는 예수중심교단의 모든 이들에게 이 글을 통하여 나의 바램을 전하고 싶다. 예배가 있는 날이면 나에게 어김없이 오는 문자가 하나 있다. 바로 총회장 목사님께서 보내주시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

자’라는 문자다. 나는 이 문자를 받으면 총회장 목사님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만 하셔도 되는 분이다. 그러나 항상 ‘최선을 다하라’가 아니고 ‘최선을 다하자’라는 표현을 쓰신다. 그것은 나에게만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나는 받아들인다. 늘 당신에게는 ‘차선은 없고 최선뿐이다’라고 하시며, 매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신다. 그렇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무엇보

다 우선으로 여기시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온 몸을 불살라 식지 않는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 모두를 향하여 끊이지 않는 사랑을 베푸시는 그 모습 등등, 글로 나열할 수 없는 총회장 목사님의 이러한 모습들은 과연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 그것은 주권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나를 생각해 본다. 어떻게 보면 매우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 목사님과 같이 쉬지 않는 기도와 그 기도를 이루고자 최선을 다하는 실천이 있기 때문이다.

고로 나도 우리 목사님의 매사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닮아 보기로 작정하고 기도하며 새해에 대한 기대를 해본다. 그리고 새해를 맞는 예수중심교단 내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 모두에게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고 기쁘게 해드리는데 2019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자고 외치고 싶다. 여러분! 해봅시다. 주님의 날이 다가옴에 후회 없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한 해 동안 주를 위하여 봉사해주시고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중심교단 사무국장 이석실 목사

:: 청춘, 그 아름다운 이름 ::

왜 거북이는 토끼와 경주를 했을까?

최근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개그우먼 이영자 씨가 국군 장병들에게 한 강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거북이는 왜 토끼와 경기를 한다고 했을까요? 누가 봐도 거북이는 토끼와 상대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거북이가 왜 그랬다고 생각되나요?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이영자 씨는 먼저 자신의 삶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이 아닌 나도 모르게 왜곡된 내 안의 열등감이었어요. 우리 집이 생선 가게였기 때문에 비린내가 난다는 게 저의 콤플렉스였어요. 그래서 누군가 냄새만 맡아도 기죽고 놀림 받을까 봐 계속 냄새를 확인하던 게 지금까지도 습관으로 남아있어요. 친구들은 다른 의도가 없는데도 나 혼자 부풀려 생각하고, 그러다가 친구들이랑 싸우고. 그러면서 나 자신이 늘 세상을 왜곡되게 바라본 거예요. 콤플렉스가 생긴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철저한 남아선호사상이었어요. 저는 닭다리가 그렇게 맛있는지 나중에 알았어요. 닭다리는 오빠 거, 닭 날개는 아버지 거, 제거는 닭 목살뿐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 콤플렉스가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좋

아한다고 하면 민망하고 어색해요. 열등감이 만들어낸 거죠. 콤플렉스란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집중해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내 열등감이 무엇인지. 그걸 찾아내서 박살냈으면 좋겠어요. 열등감을 떨쳐내야 스스로 망가지지 않아요. 열등감은 나쁜만 아니라 내 가족들까지도 망가뜨릴 수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고 고치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를 뼈뺏하게 듣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북이는 왜 토끼와 경기한다고 했을까 생각해보았어요. 거북이는 콤플렉스가 없었구나.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간 것일 뿐이구나. 거북이는 느리다는 열등감이 없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할 일이었어요. 그냥 승패와 상관없이 자기의 길을 간 거죠.”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열등감은 무엇인가요? 내 삶의 기준을 돈에 두면, 가난이 수치스럽습니다. 외모에 두면, 예쁜 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 열등감을 만들어내지요. 학력이나 직장에 두면, 자신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며 신세를 한탄하게 되고요.

저는 이 지면을 통해 몇 번 말씀드렸듯이 피 어릴 적에 집안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뭐 하나 풍족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놀라울 정도로 콤플렉스가 없었는데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제 자존감의 기준이 경제력이나 부모님의 지위, 외모 같은 외적인 것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자존감의 뿌리는 ‘우리 집에 돈이 얼마나 많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느냐’였어요. 그래서 제가 남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그 신앙심이 저의 긍지가 되었고, 그런 나를 예수님도 더 예뻐하실 거라는 믿음이 저의 자부심이 되었던 겁니다. 어린 시절, 예수님이 중심이었던 자존감이 저를 당당하고 자신 있게 만들어주었지요.

느리다는 열등감이 없었기 때문에 토끼와의 경주에 임할 수 있었던 거북이. 작고 약하다는 열등감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보다 몇 배나 덩치 큰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다윗.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는 열등감이 없었기 때문에 왕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던 요셉. 못 배웠다는 열등감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군중 앞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베드로. 2019년에는 그들처럼 열등감을 이겨내고 예수중심으로 당당한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신은혜 자매

Good News

내년도 대학 입시를 위해 치러진 수능고사가 예년에 비해 훨씬 높은 난이도로 어렵게 출제가 되어 ‘불수능’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어시험문제가 지문을 다 읽은 후에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장황하고 복잡했다고 합니다. 어찌 되었든 시험은 끝이 났고 그 받은 점수를 가지고 자신의 적성과 성적에 맞는 대학을 찾아서 분주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고3 수험

생들에게 수능과 입시는 매우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의 결과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떨어지면 불을 때까지 또 시험을 치르면 되고,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으면 포기하고 또 다른 길을 찾아나서도 되고, 공부가 하기 싫으면 접고서 바로 직장이나 사업을 찾아 나서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누구나 한번은 죽어야 하고 죽은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 일은 예정연습이 없고 언제 치러야 할지 날짜는 정해져 있겠

지만 정작 당사자는 그 날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세상은 대부분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믿음을 모두 다 갖추었으면 모두 다 들어갈 수가 있고,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단 한사람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도토리 키 재기 하려 애쓰지 말고, 믿음을 준비하여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건강검진

A씨는 1년에 한 번씩 직장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직장 건강검진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강제성을 띤다. 비사무직 근로자는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한 번씩 받게 되는데, 건강검진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진다. 1차 검진 항목은 신장, 체중, 청력, 시력, 구강검진, 흉부 방사선 촬영, 소변검사, 혈압, 혈액 검사와 문진을 진행한다. 혈액 검사를 통해서 콜레스테롤과 공복혈당, 요단백 등 11개 항목을 검사하게 된다. 성별과 연령에 따라 5대 암 검사가 추가로 진행되는데, 만 20세 이상 여성의 경우 자궁경부암, 만 40세 이상은 유방암, 만 40세 이상은 위암과 간암, 만 50세 이상은 대장암 검진 등이 추가된다. 2차 검진 항목으로는 1차 검진 결과를 토대로 좀 더 세부적인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2차 검진을 진행

하는데, 항목으로는 고혈압 의심자를 대상으로 하는 혈압과 심전도 검사, 당뇨병 의심자에게는 공복혈당과 식후 2시간 혈당 검사가 진행된다. 가족력이 있거나 건강에 이상이 의심된다면 기본 건강검진에 추가 검진을 선택해서 받는 것이 좋다. 특히 연령과 성별에 따라 검진해보면 좋을 만한 항목들이 있는데, 40대에는 잘못된 습관이 질환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나이이므로 위내시경과 복부초음파를 기본적으로 많이 선택하고, 여성의 경우 유방 초음파도 선택 검진을 추천하며, 남자는 간 섬유화와 동맥경화 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 50대에는 중증 질환 유병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므로 기본 검사만으로는 부족해서 특별한 문제를 느끼지 못해도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복부초음파에 더해 남자는 관상동맥 CT, 여자는 갑상선 초음파와 골밀도 검

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60대는 중증 질환과 더불어 노인성 질환이 증가하는 나이기 때문에 남자는 전립선 검사와 전립선 초음파, 그리고 복부 초음파와 위내시경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여자는 위내시경과 복부 초음파, 치매 선별 검사를 많이 받는다. 무조건 여러 가지 고가의 검사를 받기보다, 자신의 생활습관이나 과거병력, 가족력을 고려하여 개개인에게 맞는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잘 아는 단골의사를 주치의로 두어 주기적으로 자신의 건강에 대해 상담 및 진찰받은 후 자신에게 맞는 건강검진을 선택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마 16:26).

Dr. 조희경 집사

:: 빛이 되리라::

성공자가 되려거든

성공자와 실패자의 구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연세대 명예교수 김형석 교수는 그의 저서 ‘백년을 살아보니’에서 자신이 가진 능력을 초과달성한 사람을 성공자로, 미달성한 사람을 실패자로 보는 견해를 말씀하신다. 한평생 100이란 성과를 똑같이 달성했어도, 150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실패자이고, 50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성공자라는 의미이다.

비슷하지만 또 다른 관점이 있다. 성공자들은 늘 목표를 세우고 목표에 근거해서 실행에 옮긴다. 하지만 실패자들은 목표 자체를 세우지 못한다. 목적지로 삼은 뜻대가 있으면 달려가거나 걸어가서라도 뜻대를 향해 결국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뜻대가 없으면 정확한 방향으로 전진해나갈 수가 없다.

사람은 누구나 목표를 세우면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의욕과 열정이 생기게 되어 있다. 이를 알기에 악한 존재들은 게으름이탄 무기로 사람들이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게 만든다. 목표가 없으니 달려가지 못하고 결국 성장이 멈춘다. 그래서 늘 살아 왔던 그 습관과 그 패턴을 고집하고 혁신과 준비성 없이 평범한 삶을 살아간다.

새해는 목표를 새로 설정하고 내 삶의 노선을 재조정하기에 가장 좋은 때다. 새해를 맞이하며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꼭 세워보자. 그 목표를 눈에 가장 잘 보이는 핸드폰에 저장해 넣어두거나 종이에 적어 벽에 붙여놓고 꾸준히 보며 되새기자. 그리고 내 주위를 목표를 이룰 수 있을만한 환경으로 바꾸는 재정비, 리모델링을 하자. 남들에게도 내 목표를 알려 배수진을 치자. 결단하면 그 때부터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다. 새로운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한 해 2019년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내딛자.

장명훈 집사
jjoshua@hanmail.net

